

회의 일시 2023. 3. 6. (월) 18:00
 회의 장소 총학생회 회의실 (80414)
 회 차 55 - 8
 서 기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김정수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	유학대학 ○
문과대학 미선출 (비상대책위원회)	법과대학 X	사회과학대학 ○
경제대학 ○	경영대학 ○	사범대학 ○
예술대학 미선출 (비상대책위원회)	글로벌리더학부 ○	글로벌융합학부 ○
동아리연합회 ○		

전체 단위 수: 10 / 정족수: 7 / 출석 단위 수: 10

1. 단위별 사업 보고

1) 총학생회

- 가. 어도비 라이선스 신청 완료 (2. 28.)
- 나. 입학식/새터 이후 인권 설문조사 (3. 2.)
- 다. 교무처 미팅 진행 (3. 2.)
- 라. 공모전 시상식 진행 (3. 3.)
- 마. 스쿠패스 1탄 진행 (3. 4.)
- 바. 단과대 홍보부스 배치 완료 및 진행 예정 (3. 7. - 3. 8.)
- 사. 총학생회 소통창구 SKKUPlace 진행 예정 (3. 7. - 3. 8.)

2) 유학대학

- 가. 새터 결산 진행 중
- 나. 2023 1학기 유학대학 멤버십 가입 진행 중 (3. 1. - 3. 31.)
- 다. 유학대학 학생회 부원 리크루팅 진행 중 (3. 3. - 3. 12.)
- 라. 1학기 개강총회 (3. 3.)
- 마. 유학대학 학생회비 납부 (3. 3. - 4. 4.)
- 바. 학년별 학년 대표 투표 진행 중 (3. 6. -)

3) 문과대학

- 가. 새터 결산 진행 중
- 나. 사물함 배정 사업 진행 중 (3. 6. -)

4) 법과대학

5) 사회과학대학

- 가. 제5차 단과대운영위원회 회의 (3. 1.)
 - a. 사회과학대학 자치단위 '비인준' 단위 문구 명시 의결
- 나. 사회과학대학 자치단위 리크루팅 가이드 게시 완료 (3. 2.)
- 다. 개강맞이 간식 배부 완료 (3. 6.)
- 라. 오프라인 소통 부스 진행 중 (3. 6. - 3. 7.)

- 마. 사회과학대학 집행부 신입국원 모집 중 (3. 3. - 3. 7.)
- 바. 사회과학대학 새터 결산 진행 중
- 사. 사회과학대학 사물함 대여 사업 준비 중
- 아. 사회과학대학 친목 짝조 사업 준비 중

6) 경제대학

- 가. 경제X경영 만우절 행사용 대운동장 대여 완료 (3. 1.)
- 나. 경제대학 동문 초청 강연회 신청자 수합 중 (3. 2. - 3. 8.)
- 다. 제3차 국장단 회의 진행 완료 (3. 2.)
- 라. 경제대학 학생회 신입국원 모집 진행 중 (3. 3. - 3. 9.)
- 마. 2023 경제대학 새터 결산 완료 (3. 4.)
- 바. 경영대학 학생회와 만우절 행사 논의 진행 예정 (3. 7.)
- 사. 경제대학 학생회 소통창구 진행 예정 (3. 8.)
- 아. 경제대학 멘토링 발대식 진행 예정 (3. 13.)

7) 경영대학

- 가. 경영학과 학회, 소모임 인준 관련 정보 전달 및 수합 예정 (3. 3. -)
- 나. 경영대학 학생회 리크루팅 진행 중 (3. 4. - 3. 13.)
- 다. 2023 경영학과 새터 대금 업무 완료 (3. 6.)
- 라. 경영학과 과잠 1차 대상자 배부 중 (3. 6. - 3. 7.)
- 마. 경영학과 가족제도 선배모집, 글로벌경영학과 엄빠제도 프로그램 신청자 수합 중 (3. 6. - 3. 11.)
- 바. 경영학과 융합트랙 건의사항 설문조사 진행 중 (3. 6. - 3. 15.)
- 사. 제5회 경영대학 집행부 회의 예정 (3. 7.)

8) 사범대학

- 가. 희소고시 이벤트 안내글 업로드 (2. 27.)
- 나. 수업시연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a. 수업시연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글 업로드 (3. 1.)
 - b. 수업시연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연장 공지 업로드 (3. 4.)
- 다. 사범대학 새터 참가자 설문조사 진행 (3. 5. -)
- 라. 사범대학 학생회 신입 집행부원 모집 완료 (3. 6.)



9) 예술대학

- 가. 예술대학 어도비 라이선스 신규 신청자 모집 자보 업로드 및 마감 완료 (3. 1. - 3. 5.)
- 나. 후보등록 최종 회의 및 등록 서류 검토 완료 (3. 3.)
- 다. 후보등록공고 및 약력 인쇄물 부착 완료 (3. 4.)
- 라. 2023 새터 결산 진행 중

10) 글로벌리더학부

- 가. 과잠 신청 중, 주문 예정 (3. 6.)
- 나. 23학번 신입생 리크루팅 진행 중 (2. 27. - 3. 6.)
 - a. 면접 진행 예정 (3. 7. - 3. 8.)
- 다. 제2회 글융X글리 연합학술제 준비 중
- 라. 개강총회, 개강파티 준비 중 (3. 10.)
- 마. 학년대표단 선거운동본부 등록 진행 중 (3. 6. - 3. 12.)
 - a. 학년대표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고 완료 (3. 6.)
- 바. 새터 만족도 조사 중 (3. 4. - 3. 8.)
- 사. 총 MT 참가 신청 중 (3. 6. - 3. 8.)
- 아. 오프라인 서적 거래 “글리문고” 진행 완료 (3. 2. - 3. 3.)
- 자. 글로벌리더학부 라운지 이용수칙 게시 및 부착 완료
- 차. 법학관 사물함 배정 사업 진행 중 (3. 6. - 3. 8.)
- 카. 제5차 집행위원회 회의 (3. 3.)
- 타. 글로벌리더학부 학회, 소모임 운영세칙 개정 (3. 5.)

11) 글로벌융합학부

- 가. 3월 학사일정안내 카드뉴스 업로드 (2. 28.)
- 나. 새터
 - a. 이벤트 당첨자 및 해커톤 우승팀 기프티콘 발송 (2. 28.)
 - b. 결산 진행 중 (3. 3. -)
- 다. 사물함 철거 기간 안내 문자 발송 및 스토리 업로드 (3. 2.)
- 라. 학부 점퍼 실수요조사 진행 중 (3. 2. -)
- 마. 제11차 집행위원회 회의 (3. 2.)
- 바. 제5대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 Collage 마스코트 소개 카드뉴스 업로드 (3. 3.)
- 사. 신입국원 리크루팅 진행 중
 - a. 1차 서류 검토 완료 (3. 4.)
 - b. 면접 진행 중 (3. 5. - 3. 6.)



아. 제5차 글로벌융합학부 운영위원회 회의 (3. 6.)

12) 동아리연합회

가. 회실 청소 및 물품대여사업 물품 정비 (2. 28.)

나. 제5차 집행부회의 (2. 28.)

다. 홍보부스 제휴 업체 컨택 완료 (3. 1.)

라. 재등록&신규등록 서류 접수 중 (3. 3. -)

마. 홍보부스 진행 중 (3. 6. - 3. 9.)



2. 논의 및 심의 안건

1) 총학생회

가. 학생회비 배분안 논의

총학생회: 이전 중운 회의에서 진행했던 학생회비 배분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함. 22년도 이전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에 31%, 동아리연합회 11%, 단과대학에 58% 비율로 배분됨. 그러나 작년, 제54대 총학생회 Spring에서 총학생회 배분 비율을 자체적으로 10%, 즉 전체 비율에서 3%p 감축하여 수치를 28%로 변경하였고, 그만큼 단과대에 배분하기로 했음. 올해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만약 각 단위에서 특별자치기구(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배분 비율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없으시다면 단과대학 배분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음.

더불어서 오늘 학생지원팀에 학생회비 납부율을 요청해서 받아왔음.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 기존 38%이던 학생회비 납부율이 50%를 넘어섰음. 단위별로 등록자 수와 납부자 수가 기록되어 있는 표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음. (표 이미지 공유) 3월 중순까지는 중도 휴학 등으로 인해 소폭 조정될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리더학부의 납부율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 질의.

총학생회: 현재로서는 글로벌리더학부가 사회과학대학에 포함되어 나타나 있을 것임. 추후 학생지원팀에서 글로벌리더학부와 사회과학대학을 분리한 자료를 제작할 예정. 작년도 1학기, 2학기 배분안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해당 파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경제대학: 학부대학은 LC를 말씀하는 건지 질의.

총학생회: 학부대학은 계열 신입생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답변. 학부대학에는 인문과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인문과학계열은 문과대학, 유학대학에서 조정을 통해 배분하시면 되고, 사회과학계열은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조정해서 배분하시면 됨. 따라서 문과대학, 유학대학,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은 각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학우분들과 학부대학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우분들을 포함하여 학생회비를 산정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람. 참고 차원에서 작년 학생회비 배분 엑셀 파일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음. (엑셀 파일 공유)

경제대학: LC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거쳐 배분한 건지 알 수 있는지 질의.

총학생회: 그 부분 관련해서 작년도 중운에서 논의를 진행했던 기록을 확인했음. 작년에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단과대 간의 논의를 이야기했고, 양 단과대에서 알아서 배분한 것 같음. 자세한 내용은 작년도 학생회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질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함.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배분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오늘은 단과대학 배분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크게 세 가지 항목(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과캠에서는 단과대 기본 배정액이 14%, 납부 인원 비례액이 86%, 학생 수 비례액이 0%임.

글로벌리더학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과캠의 경우 기본 배정액이 낮고 납부 인원 비례액이 높아도 대형 단과대가 소형 단과대에게 부족하거나 남은 만큼 학생회비를 양도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공평함을 유지한다고 들었음.

글로벌리더학부: 총학생회는 전대에서 많이 줄인 것으로 아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부담은 없는지 질의.

총학생회: 물론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총학생회는 단과대에 비해 사업이나 행사의 규모가 커서 모든 예산을 학생회비에서 절대 충당할 수 없는 실태라, 최대한 프로모션, 제휴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나, 작년 총학생회는 각 단과대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단과대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의 비율을 줄인 것임.

글로벌리더학부: 그렇다면 작년 총학생회에서 인계된 금액이 있는지 질의.

총학생회: 있다고 답변. 올해 전학대회에서 예·결산안을 인준할 때 공개될 예정임. 작년 전학대회 자료집에도 나와 있을 것임.

동아리연합회: 조금 전 발언 때 프로모션 같은 것으로 최대한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로모션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학생회비 예산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다른 재원으로 산정이 되는지 질의.

총학생회: 후원금으로 산정이 됨. 그것도 똑같이 예·결산안에 들어간다고 답변.

글로벌리더학부: 단과대에 배분되는 학생회비 항목에 기본 배정액이 있고 납부 인원 비례액이 있고 학생 수 비례액이 있음. 납부 인원과 학생 수는 변수 자체가 비슷함. 사실상 두 번째 변인이 세 번째 변인에 종속됨. 첫 번째 기본 배정액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본 배정액을 올리는 것이 어떤지 제안함.

총학생회: 어느 정도를 말씀하는 것인지 질의.

글로벌리더학부: 과하지 않게 현재 44%이니 55%까지 올리는 것이 어떤지 질의. 기본 배정액을 높이면 부담을 덜 수 있음. 글로벌리더학부와 같은 소형 단과대는 인원 수가 적으니 제휴도 잘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지출액이 적지도 않음.

경제대학: 사실 인원 수가 많다고 크게 유의미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지는 못함. 단체 주문 혹은 행사 진행에 있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함. 인원 수 비례해서 추가로 받는 것도 없고, 기본 배정액 항목이 존재하지만, 추가로 수치를 늘리면 규모가 큰 단과대에서 받는 이점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반대임.

사범대학: 납부 인원에 대한 비율을 크게 산정하는 것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에 좋다고 생각함. 사범대학은 새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강연 순서에서 시간을 따로 빼 학생회비에 대한 교육을 따로 진행하여 납부 장려를 한 바 있음. 납부 인원에 대한 비율을 올려야 단과대에서 독려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총학이나 단과대 차원에서 좋지 않나 생각함. 기본 배정액에 관한 의견은 뚜렷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차라리 납부 인원 비례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임.

경영대학: 그렇다면 학생 수 비례액을 늘리고 납부 인원 비례액을 낮추자는 말씀이 맞는지 질의.

사범대학: 학생 수 비례액에서 납부 인원 비례액으로 조금 옮기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임.

글로벌리더학부: 기본 배정액 자체를 50%로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경제대학: 기본 배정액을 50%으로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글로벌리더학부: 경영대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휴 진행 시 받는 금액이 다른데 글로벌리더학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0원이었음. 현재는 제휴비가 들어오는 것이 모두 불리한 조건인데 수공할 수밖에 없음.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됨.

경제대학: 제휴에 있어 경제대학도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음. 협찬 관련해서 타 단과대와 받는 액수는 같다고 생각함.

사회과학대학: 작년 2학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보면 글로벌리더학부에 등록된 인원과 사회과학대학과는 7배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배분된 금액은 3배 정도 차이가 남. 사실상 학생 수 비례액을 따지자면 글로벌리더학부가 훨씬 높으며 제휴를 생각해보면 사회과학대학이 100만 원을 받아도 1인당 50원 정도 임. 결론적으로 기본 배정액을 올리게 된다면 사회과학대학은 1인당 비율이 더욱 감소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글로벌리더학부: 확실히 이해는 하고 있음. 예산을 학생사회로 환원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나오는 욕심임. 인원 수가 7배 차이를 보이지만 금액 자체는 3배의 차이만 있는 이유는, 7배나 차이가 나 버리면 소규모 단과대는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임. 똑같이 현수막을 쓰고 똑같이 홍보하고 똑같이 기프티콘 주는데 소규모 단과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함. 기본 배정액을 조정하기 힘드시다면 사범대학이 말씀해 주신 납부 인원 비례액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경제대학: 사실 이것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상을 할 것인지 현상 유지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글로벌리더학부의 입장은 잘 이해가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대형 단과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임.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7배 더 많은 상황인데 금액은 3배만 더 받고 있음. 이것은 어느 정도 이미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임. 여기서 더 강요하면 무리가 아닌가 싶음.

총학생회: 기본 배정액에 관련하여 글로벌리더학부는 어떤 입장인지 질의.

글로벌리더학부: 50%까지는 욕심이더라도 45% 정도로 1%p의 인상 혹은 법과대학 학생회비 2차 배분에서 부족한 단과대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입장임.

경제대학: 말씀한 것처럼 글로벌리더학부를 포함한 소수 인원의 단과대학 학생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경제대학 역시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도 많은 부담을 하는 상황이기에 44%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고, 말씀해 주신 법과대학 2차 배분안은 맞춰 갈 수 있다고 생각함.

글로벌리더학부: 경제대학이 대형 단과대를 대표하여 배려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 글로벌리더학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임.

글로벌융합학부: 2021학년도 1학기에는 기본 배정액이 48%였고, 2학기부터 44%로 내려간 것 같음. 이는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48%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경영대학: 말씀해 주신 의견의 근거가 공통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크기가 크다는 것인데 항상 공통 비용보다 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함. 체육대회, 경영인의 밤 등 인원 수에 비례한 지출이 더 큼. 새터를 진행하더라도 경영대학은 큰 규모에서 진행하니 기본 지출보다는 인원 수 비례해서 나가는 돈이 많음.

사범대학: 단적인 예시를 들면 공연을 진행할 때 조명이나 음향 설치 시 인원이 적은 단과대가 더 힘들다고 생각함. 같은 금액과 시간을 사용하게 됨.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48%로 책정한 것에 근거가 있을 것임. 코로나도 끝났으니 그 정도로 복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임.

경제대학: 물론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추가로 소수 인원 단과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대형 단과대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해 반대함.

문과대학: 21학년도 1학기에 48%에서 44%로 내려간 것은 53대 중운 회의록을 참고해 보면 단지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를 2학기 미룬 것으로 알고 있음. 44%라는 비율도 충분히 소수 단과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본 배정액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경영대학: 서로의 입장을 잘 모르니 서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이번 비율이 충분히 소규모 단과대를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상은 옳지 않은 것 같음. 유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임.

사범대학: 사실 학생회비 배분이 금전적인 부분이니 수치를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뚜렷한 근거가 없이는 모두의 동의를 얻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음. 말씀드렸던 납부 인원 비례액을 고려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함. 그 부분은 단과대에서 노력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 동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됨.

유학대학: 유학대학은 이 방향성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바임. 단과대의 역할이 크니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함. 학생 수 비례액을 낮추고 싶음.

경영대학: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질의.

유학대학: 가장 간단하게는 표를 보면 2022년 1학기 유학대학이 납부한 비율보다 올해 유학대학에서 납부한 비율이 더 큼. 납부 인원 비례액을 늘리면 유학대학 소속 인원이 낸 만큼 돌아오는 수혜가 더 커짐.

경영대학: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비율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만, 올바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영대학은 사업 진행 시 인원 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음. 물론 혜택도 많지만, 혜택을 넘어서는 비용이 지출됨.

사범대학: 이해함. 솔직하게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혜택이 제공되는 것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경영대학: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님. “학생회비 내셨어요?”라고 물어보고 간식을 주지는 않음. 모두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번 학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노력한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음.

사범대학: 이상과 현실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는 끊어 내는 순간이 있고 과도기가 있어야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미루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함. 그 시점이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경영대학: 시점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임. 비율을 줄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사업에 관해서 혜택을 주는 대상이 달라져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 그 합의는 앞으로 중운 회의를 통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음.

총학생회: 지금까지 서로의 의견을 잘 들은 것 같음.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기보다 실질적인 숫자를 논의해야 함. 의견이 있다면 말하고, 없다면 기존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경제대학: 학생 수 비례액과 기본 배정액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휴학에 따라 변동 폭이 크고 실제 납부 인원의 경우 올해는 약 40% 정도가 나와도 이후에는 납부를 진행하면서 수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납부 인원 비례액과 학생 수 비례 항목의 비율을 수정하여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현상 유지를 제안.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 세 항목의 비율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글로벌리더학부 측에서 제시한 법과대학 배분 비율 수정에 관해 논의했으면 함.

총학생회: 어떤 쪽으로 수정하고 싶은지 질의.

경제대학: 학생회비 배분액의 세 항목과 같은 비율로 모든 대학에 배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싶다고 답변.

글로벌리더학부: 경제대학에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만약 기본 배정액, 학생 수 비례액, 납부 인원 비례액을 동결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동결 후 법과대학 학생회비를 기본 배정액처럼 단과대 수에 맞춰 1/N을 해서 배분받는 것을 제안하고 싶음. 전체적으로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정량적으로 플러스되는 단과대학이 있을 것임. 지금 이 시점에서 법과대학 학생회비를 1/N 한다면 글로벌리더학부, 유학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글로벌융합학부가 혜택을 볼 것임. 나머지 단과대는 혜택을 볼 수 없음. 약 8만 원 정도 혜택을 못 받을 것임. 하지만 글로벌리더학부에게 8만 원은 매우 큰 액수임. 간식 사업 진행 시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사범대학: 아까 논의가 마무리지어지진 않았지만, 사범대학 입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납부가 되었고 1학기의 계획이 세워진 상황에서 어렵다는 현실임. 하지만 변화가 적절한 것이라면 급진적인 변화는 어려우니 점진



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를 주는 건 필요할 것 같음. 납부 인원 비례액을 23%에서 26%로 변경하고 학생 수 비례액을 33%에서 30%로 변경하여 3%p 정도를 이동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해 봄.

총학생회: 정리하자면 1) 경제대학은 단과대학 배분액의 세 가지 항목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과대학 학생회비 배분안을 기존의 세 가지 항목과 같은 비율로 하는 안을, 2) 사범대학은 납부 인원 비례액을 23%에서 26%로, 학생 수 비례액을 33%에서 30%로 하는 안을, 3) 글로벌리더학부는 만약 세 가지 항목의 비율이 동결된다면 법과대학 학생회비를 균등하게 추가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음.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

사회과학대학: 아무 변화 없이 동결하자는 의견임. 그 이유는 납부 인원 비례액을 3%p 올리고 학생 수 비례액을 3%p 낮추자고 했는데, 사실 학우들이 3%p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음.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음. 비율을 동결하고 학생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봄.

경영대학: 추가로 이런 방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는 너무 좋음. 그러나 사업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비율을 수정하는 것임. 비율을 먼저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중운의 입장이 확실하게 앞으로 학생회비를 낸 사람의 혜택을 달리하는 것이어야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임. 예산안을 변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음.

사범대학: 대상을 한정하자는 말을 계속하셨는데, 그 의미가 학생회비를 납부한 인원과 아닌 인원에게 차등을 두겠다는 것인지 질의.

경영대학: 옳다고 답변.

사범대학: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문과대학: 납부 인원 비례액을 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기본 배정액은 소수 단과대를 배려한 부분이고 학생 수 비례액이 대형 단과대를 배려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함. 학생 수 비례액에서만 납부 인원 비례액을 빼는 것이 아닌 기본 배정액에서 1%p, 학생 수 비례액에서 1%p를 가져와 납부 인원 비례액을 2%p 올리는 것이 어떤지 제안함.

총학생회: 지금 많은 안이 나옴. 기본적으로 일단 단과대학 배분안과 법과대학 2차 배분안을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음.

글로벌리더학부: 두 부분을 분리하기 좀 어려움. 대형 단과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서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나중에 법과대학 배분안이 글로벌리더학부가 제안했던 것과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법과대학 학생회비 배분안까지 합의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함. 의결 후 이야기가 달라지면 서로 좋지 않을 것 같음.

총학생회: 그렇다면 법과대학 2차 배분안을 먼저 합의하고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음.

글로벌리더학부: 그 부분을 먼저 진행하되 서로 합의하면 좋을 것 같음.

총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비 2차 배분액을 기존의 단과대 배분율로 수정한다.' '법과대학 학생회비 2차 배분액을 법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에 균등하게 추가 배분한다.' '기존의 비율로 동결한다.' 이 세 가지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경제대학: 법과대학 기본 배정액의 취지는 대형 단과대보다 소수 단과대를 위해서에 있음.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다시 균등 배분을 주장한다면 1차로 대형 단과대에서 배려해 드린 법과대학의 학생회비를 넘어서 추가적인 균등 배분을 하여 대형 단과대가 모두 희생해 달라고 하는 것임. 경제대학은 안 된다는 주장임.

총학생회: 정리하자면 법과대학에 배정되어 있는 기본 배정액이 대형 단과대 입장에서 1차적으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균등하게 1/N을 하면 2차로 배려해 달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 맞는지 질의.

경제대학: 그렇다고 답변.

글로벌리더학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함. 기본 배정액이 배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임. 다시 기본 배정액으로 배분한다고 해서 취지가 달라지지 않다고 생각함. 오히려 같은 취지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함. 소수 단과대에게 8만 원 정도 이익이 있고 사범대에는 5만 원 정도 있음. 나머지 단과대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피해가 갈 것임.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 모두 생각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의결을 하고자 함. 출석 단위 2/3 이상, 즉 7표 이상 찬성이 나와야 의결할 수 있음.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는 관례상 기권을 하나, 상황에 따라 소신껏 투표하겠음.

문과대학: 어떠한 안도 가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

총학생회: 타협안이 정해질 때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

총학생회: 1번 안부터 의결 진행하겠음.

1번 안: 법과대학 배분액을 법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에 균등하게 추가 배분한다.

-> 부결 (찬성 4 / 반대 3 / 기권 3)

2번 안: 법과대학 2차 배분율을 기본 배정액 44%, 남부 비례액 23%, 학생수 비례액 33%로 배분한다.

-> 부결 (찬성 2 / 반대 4 / 기권 4)

3번 안: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에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비 납부인원 / (총 학생회비 납부 인원 - 법과대학 학생회비 납부 인원)}을 곱하여 법과대학을 제외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로 추가 배분한다.

-> 부결 (찬성 3 / 반대 3 / 기권 4)



총학생회: 지금부터는 타협점을 찾아서 모든 단위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의결안 한 가지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람.

경제대학: 말씀해 주신 법과대학 기본 배정액 관련해서 취지 자체가 소수 단과대를 위한 것이고 소수 단과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긴 것이니 2차로 배분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동의하고 단과대학 배분안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음.

최종 안: 법과대학 기본 배정액을 법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에 균등하게 추가 배분하되, 단과대학 배분액 세 항목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은 현상 유지한다.
-> 가결 (찬성 8 / 반대 0 / 기권 2)

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 상정

총학생회: 곧바로 위 안건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겠음. 총학생회칙 제69조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 중 2항에 학생회비 배분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이 있음. 그리고 3항에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이 있으나,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은 다음 주에 인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결정된 학생회비 배분안에 관련해서 먼저 인준을 받도록 하겠음.

학생회비 배분안 인준

1. 특별 자치기구에 총 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한다.
 - a. 총학생회에 총 학생회비의 28%를 배분한다.
 - b. 동아리연합회에 총 학생회비의 11%를 배분한다.
2. 단과대학 학생회에 총 학생회비의 61%를 배분한다.
 - a. 기본 배정액 44%, 납부 인원 비례액 23%, 학생 수 비례액 33%로 배분한다.
3. 법과대학 배분액의 경우 법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에 균등하게 추가 배분한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한다.

-> 가결 (찬성 10 / 반대 0 / 기권 0)



3.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1) 총학생회

가. 대의원 명단 수합

총학생회: 3월 20일에 진행 예정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참석 관련하여 공지방에 엑셀 파일을 보내 드렸음. 전학대회 시트에서 각 단과대에서 참석하는 대의원 명단을 적어 주어야 함. 비상대책위원회는 따로 표시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됨.

문과대학: 3월 20일 몇 시에 진행 예정인지 질의.

총학생회: 오후 7시에 진행 예정임. 추가로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따로 실물 자료집을 만들지 않을 예정. 아카이빙용으로 몇 권만 만들 예정임. 참석자에게 PDF 파일로 제공될 예정임.

유학대학: 학년 대표는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인지 질의.

총학생회: 1, 2학년에서 한 명, 3, 4학년에서 한 명 참여하면 됨.

동아리연합회: 이번 주 안에는 힘들 것 같음. 아직 호선이 끝나지 않았음. 다음 주에 드려도 괜찮은지 질의.

총학생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무총괄국에서 언제까지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음.

글로벌리더학부: 다른 단과대에는 학년 대표가 전부 있는지 질의.

경제대학: 작년에도 1학년 학년 대표가 없는 상황이 있었음. 그래서 1학년은 생략했었다고 답변.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학년 대표가 존재하는데 명단에는 없음.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총학생회: 확인 후 알려드리겠다고 답변. 일단은 학년 대표까지 전부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음.

총학생회: 전학대회에 따로 상정하고 싶으신 안건이 따로 있는지 질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겠음.

이상으로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칩. (폐회 선언) 20:07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유학대학

박준현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정진우

경영대학

박성연

사범대학

석진우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융합학부

박보연

동아리연합회

서지현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3월 6일

